

전공영어 합격가이드

# English

김유석  
전공영어

---

일반영어(비문학) / 영어문학 부동의 1위

---

2 0 2 4 학 년 도 대 비



윌비스 임용고시학원 1544-3169

## ■ 목차 ■

I. 김유석 교수 소개 및 저서 .....	1
II. 임용 1차 시험유형 .....	2
III. 최근 6개년 공립중등임용시험 전공영어 모집인원 .....	3
IV. 최근 10개년 및 2023학년도 지역별 전공영어 응시경쟁률 .....	4
V. 최근 5개년 공립중등임용시험 전공영어 1차 합격선 .....	5
VI. 시험후기 .....	6
VII. 적중문제 .....	8
VIII. 적중 감사문자 .....	11
IX. 수강후기 .....	12
X. 김유석 교수 커리큘럼 .....	20
XI. 김유석 교수님 상담 신청서 .....	21

# I. 김유석 교수 소개 및 저서

## 일반영어(비문학)/영미문학의 최고 전문가



### [약력]

성균관대 영문학과 학사 졸업  
 성균관대 영문학과 석사 졸업  
 일리노이 주립대 TEFL과정 부분수료  
 (전)김영편입학원 영어과 의약대반 교수  
 (전)박문각 임용고시학원 전공영어 교수  
 (전)EBS 교원임용 전공영어 교수  
 (현)월비스임용고시학원 전공영어 교수 / 임고야 동영상사이트 전공영어 교수  
 연세대/고려대/한양대/경희대학원 등 언택트 임용특강  
 성균관대 교육대학원/건국대/홍익대/송실대/공주대/대구대/원광대 등 임용특강

### [저서]

<p>김유석 영미문학(박문각, 2003)                  김유석 일반영어 기본이론(형설출판사, 2003)                  김유석 일반영어(유형편)(형설출판사, 2003)                  중등임용고시를 위한 영미문학(박문각, 2004)                  기본일반영어(형설출판사, 2004)                  영미단편소설(고원출판사, 2005)                  일반영어/영미문학 문제집(고원출판사, 2006)                  영미문학 이것만은 알고가자(고원출판사, 2006)                  영미문학개론(경문사, 2007)                  기출 코퍼스(corpus) 어휘집(교육의창, 2008)                  김유석팀 일반영어(형설출판사, 2009)                  영미단편소설강독(교육의창, 2009)                  전공영어기출변환문제집(교육의창, 2009)                  전공영어 2차대비 전공논술 자습서(교육의창, 2009)                  All in 영미문학(교육의창, 2010)                  All in 일반영어(교육의창, 2010)</p>	<p>일반영어를 요리하다(교육의창, 2011)                  영미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교육의창, 2011)                  Essential Reading Skills(경문사, 2013)                  Essential Literature(경문사, 2013)                  영미소설의 이해(교육의창, 2014)                  영미시의 이해(교육의창, 2014)                  전공영어 서답형 기출해설서(교육의창, 2014)                  임용일반영어(교육의창, 2014)                  임용VOCA3300(교육의창, 2014)                  Power Reading Skills(교육의창, 2015)                  Walden 특강(교육의창, 2015)                  POWER 임용VOCA(교육의창, 2017)                  POWER 전공영어 기출해설서(교육의창, 2017)                  POWER VOCA(교육의창, 2020)                  POWER 예문VOCA(교육의창, 2021)                  POWER Prose Writing(교육의창, 2022)</p>
---	---

## Ⅱ. 임용 1차 시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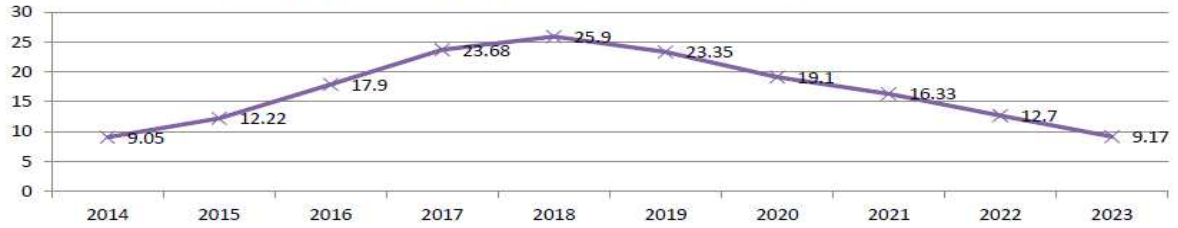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모든 교과 동일)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전공	전공A	2교시 (90분)	기입형	4문항 (4문항 감소)	8점	40점
			서술형	8문항 (2문항 추가)	32점	
	전공B	3교시 (90분)	기입형	2문항	4점	40점
			서술형	9문항	36점	
	소계			23문항	80점	
	계(배점)			24문항	100점	
★★핵심★★		단순한 전공 지식 암기 축소 기본적인 전공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문이해력 ★디렉션 분석력				

### Ⅲ. 최근 6개년 공립중등임용시험 전공영어 모집인원

지역 과목	서울						경기						경기지제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공 영 어	51	38	43	25	35	56	64	39	57	82	97	126	7	9	3	4		2
	인천						강원						충북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7	13	7	4	3	10	16	8	18	6	8	15	14	5	6	6	8	16
	충남						충남지제						대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14	22	16	3	32	28	2	2	2	2	-	2	2	2	2	-	-	-
	세종						경북						경남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6	13	9	7	9	5	-	2	19	31	30	31	21	19	11	10	11	15
	대구						울산						부산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7	4	2	1	2	2	-	1	3	5	5	6	6	15	18	13	15	19
	전북						전북지제						광주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12	31	23	16	22	22	1	-	-	-	-	-	2	2	1	1	1	-
	전남						전남지제						제주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18	22	12	21	32	41	1	1	-	-	-	-	9	3	4	7	11	11
	합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60	251	256	244	321	407												

#### IV. 최근 10개년 및 2023학년도 지역별 경쟁률

(영어) 중등교사 임용시험 10년 경쟁률 비교표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모집	672	522	378	288	249	238	251	258	321	407
지원	6,079	6,380	6,768	6,820	6,450	5,557	4,794	4,213	4,076	3,733
경쟁률	9.05	12.22	17.9	23.68	25.9	23.35	19.1	16.33	12.7	9.17

#### 최근 6개년 전공영어 지역별 경쟁률

지역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모집	경쟁률	모집	경쟁률	모집	경쟁률	모집	경쟁률	모집	경쟁률	모집	경쟁률
서울	51	26.78	38	34.13	43	20.60	25	19.00	35	17.91	56	10.01
경기	64	21.86	39	21.18	57	17.07	82	15.39	97	10.81	126	7.93
인천	6	26.17	13	20.62	7	26.40	4	22.50	3	18.00	10	8.70
강원	16	25.44	8	24.50	18	15.67	6	21.33	8	19.88	15	10.33
충북	14	27.93	5	20.00	6	24.00	6	24.17	8	10.38	16	8.10
충남	14	23.21	22	19.32	16	17.30	23	13.83	32	10.53	28	8.80
세종	6	26.17	13	20.31	9	15.33	7	15.71	9	14.22	5	13.00
대전	2	47.00	2	25.00	2	34.00						
경북			2	28.00	19	18.16	31	14.65	30	11.07	31	9.58
경남	21	33.24	19	25.58	11	22.73	10	20.20	11	17.55	15	13.53
대구	7	40.43	4	39.00	2	24.00	1	33.00	2	28.50	2	23.50
울산			1	44.00	3	24.00	5	18.20	5	19.80	6	11.50
부산	6	39.00	14	24.36	18	21.80	13	18.77	15	18.20	19	12.30
광주	2	43.00	2	30.50	1	42.00	1	30.00	1	24.00		
전북	12	25.50	31	16.52	23	16.00	16	15.88	22	10.41	22	9.80
전남	18	22.94	22	18.36	12	19.90	21	13.33	32	9.94	41	8.29
제주	9	14.56	3	23.67	4	21.50	7	13.86	11	10.36	11	7.18
합계	248	26.00	238	23.35	251	19.10	258	16.33	321	12.70	408	9.25

## V. 최근 5개년 공립중등임용시험 전공영어 1차 합격선

※ 2023학년도 1차 합격선은 2022.12.29. 합격자 발표 후 김유석전공영어 다음카페나 네이버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합격선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서울	81.7	87.3	84.7	84.0	84.67
경기	80.7	82.0	81.7	85.0	78.33
인천	78.7	78.3	79.7	85.7	79.00
세종	81.3	83.0	81.4	81.3	80.33
부산	-	81.7	81.0	82.0	80.67
대전	82.7	77.3	80.4	-	-
대구	78.7	80.7	80.7	-	82.00
광주	81.7	82.7	-	-	비공개
울산	-	-	78.4	78.3	81.67
강원	79.7	78.3	77.4	80.3	76.00
충북	80.7	78.3	78.4	84.7	74.00
충남	79.3	81.7	79.7	82.0	76.67
경북	-	84.0	78.3	82.0	77.33
경남	81.3	80.7	79.0	82.0	77.00
전북	81.3	79.7	76.7	80.7	72.67
전남	78.7	79.3	78.0	80.0	74.67
제주	78.7	76.7	80.0	78.3	78.00

## VI. 시험후기

### (2023학년도)

드디어 23학년도 임용 1차 시험이 끝났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시험 후기를 작성해보았습니다.

#### [교육학]

교육학은 오픈형 문제가 강세였던 21, 22년도 트렌드와 다르게 약간 교육학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구성되었던 거 같아요! 9-11월 강사들 모고 풀 때 작년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런지 오픈형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뒤집는 방향으로 다시 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했던 건 교육학에서 통상적으로 '기본기'로 일컬어지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개념을 학교 현장 이야기에 적용해보거나 그 개념의 장단점, 활용 방안을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연구하는 공부 습관이었던 거 같아요!

#### [영교론]

- 2, 3교시 내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거 같아요. 기존 영교론 문제는 1:1 매칭하기도 좀 쉬웠던 거 같고, identify도 금방금방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자료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찾느라 정신이 없었고, stem/option 문제처럼 다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거를 [A] 또는 [B]에서만 찾으려 했었는데, 이번엔 [A]와 [B] 모두라고 해서 최대한 적느라 팔이 너무 아팠던ㅠ

- 키템은 역시 학부에 배웠던 교재에 나온 단어들, 특히 glossary 뒤에 나온 단어들만 알고 있었도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학원 키템 자료 굳이 돈 들고 살 필요 없다!)

-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는 무조건 최대한 하려고(전 날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ㅠ) 노력해야 한다'이었습니다!! 이번에 B1 문제 정답이 action research라고 하는데, 저 이거 학부생 시절 4학년 때 academic writing class에서 했던 것입니다! 교수님이 10월 즈음에 학부 때 썼던 자료 복습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대충 쪽 훑어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것도 했었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넘겼던 건데 얻어 걸렸네요.

#### [영어학]

20, 21년도 때 영어학이 조금 쉬워지는 추세였던 거 같은데, 작년부터 다시 어려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어학 같은 경우 사고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인 거 같은데,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선 학부 때 썼던 자료를 토대로 기본 개념을 쌓은 뒤 문제를 최대한 구해서 많이 풀어보고 변형해서도 풀어보며, 또 원서 연습문제를 토대로 직접 만들어보며 공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일영]

일영 문제는 진짜 김유석 모고 푸는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복기 답안 작성하면서 슬쩍 7-11월 모고를 봤는데 드라마/일영 밑줄이나 기입형은 교수님 문제 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했던 거 같습니다! 컨퍼런스 때마다 25점 이상 맞으셨던 괴물 같은(?) 분들은 무난히 전부 온점 맞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김유석 교수님이 짚어 주신 핵심 단어 복습의 중요성! 전날 resilient 보고 갔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 (2022학년도)

안녕하세요, 유석쌤 직강을 1년간 수강한 초수생입니다! 유석쌤과 함께 1년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치열하게 달려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주변의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합불 여부를 떠나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영역별 시험 후기 남기겠습니다.



### <교육학>

이번 시험은 특히 무슨 모형인지, 각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인출이 빠른 분들에게 더 유리한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석쌤께서 항상 2차 면접 책이랑 엮어서 봐야한다고 강조해주셔서 실제로 교수학습활동과 '테크놀로지'의 접목을 물어봤다는 점에서 당황하지 않고 연습했던 답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방안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에 더 치중해서 그걸 기반으로 방안을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문에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공부방향성은 개념을 전체적인 틀을 그리며 이해하되, 각 단계 혹은 이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출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하고 나아가 2차 책과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며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일영/문학>

개인적으로 이번 문학 문제는 유석쌤 모고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평이한 정도였고, 일영문제가 까다로운 것 한 개 정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석쌤 강의에서 도움 받은 것 위주로 써볼게요! 시에서 epiphany가 나오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소설 강의에서 배운 '현현' 생각하면서 아, 화자가 어디서 깨달음을 얻는지 중점으로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A11번 문제에서는 deep sea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석쌤 모고 7-8월 5회 문제중 1번에서 light, penetration 등 관련 있던 지문 내용 떠올리면서 풀었고, 이런 문제는 scanning이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 기억하면서 해당 부분만 빠르게 패러프레이즈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B1번에서는 in a state of \_\_\_\_까지만 보고 소설 강의에서 state of inanition (Snake 에 있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떠오르면서 음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빠르게 지문 훑었는데 제가 서술→기입 순으로 푸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답으로 될 만한 거 여러 개 뽑아 놓다가 제일 그럴싸한 것 골랐는데 정답에 대한 확신은 없네요. B3번에서는 밑줄에서 take A out of B 숙어 유석쌤이 강조해주신 것 어렵듯이 기억하고 B에서 A를 꺼낸다, 없앤다, 제거한다는 거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답 서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문제는 유석쌤 모고에서 술하게 풀어왔던 익숙한 유형이었어서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Doublespeak은 제 기억으로 파워리딩스킬스 강의에서 한번 다뤘던 지문 내용인 것 같고, jargon이란 용어도 유석쌤 모고에서 communication 관련 요약지문에서 본것 같아서 지문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지문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영문학 영역과는 별개로 파워보카 책에서 나왔던 숙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막판에 단어 열심히 보라는 유석쌤 조언 듣고 파워보카 숙어편을 하루에 300개씩 돌리면서 외웠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만으로는 outstay their welcome, come to terms with 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던 것 같아요!!!

### <영어학>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 자체는 다 어디서 본 것이고, 처음 보는 이론은 거의 없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 빠른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써 줘야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술형뿐만 아니라 기입형에서도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해서 답을 물어보았다는 점에서 영어학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어떻게 문제를 잘 이해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 시험 같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영어학 문제는 대부분 건너뛰고 다른 영역들부터 푸느라 B형에서 영어학 문제를 거의 2문제나 못 풀었고, 이유를 제외하고 identify 문제만 거의 직감으로 풀어내서 답에 하나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 방향은 원서를 지나치게 보지는 않고 개념에 익숙할 정도로만 참고해서 보되, 다양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 <영교론>

영교론은 정말 기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평소 기출 난이도보다 쉬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원서는 보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거의 보지 않고 기출만 6번 풀면서 공부했는데 이때 그냥 푸 게 아니고 저만의 유형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공부했는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 풀면서 아 이거 이 유형이네, 어떻게 써야지 떠오르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영교는 모고 풀지 말고 무조건 기출 보라는 유석쌤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2008학년도(서울/인천) 20번 영미시  
William Wordsworth의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Sound & Sense 영미시 특강] 3강

적중

2009학년도 1차 37번 영미시  
William Shakespeare의 "My mistress' eyes are nothing like the sun"  
[Sound & Sense 영미시 특강] 2강

적중

2012학년도 중등임용 1차시험  
37. Read <A> and <B> and answer the question.

김유석 2011학년도 7-8월 오의고사 3회  
10.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

< A >  
Every morning I lay on the floor in the front parlor watching her door. The blind was pulled down within an inch of the sash so that I could not be seen. In the classroom her image came between me and the page I strove to read, and yet her name was like a summons to all my foolish blood.  
On Saturday evenings when my aunt went marketing I had to go to carry some of the parcels. We walked through the flaring streets, jostled by drunken men and bargaining women, the shrill litanies of shopboys, and the nasal chanting of street singers. These noises converged in a single sensation of life for me. I imagined that I bore my chalice safely through the throng of foes. Her name sprang to my lips at moments in strange prayers and praises which I myself did not understand. My eyes were often full of tears and at times a flood from my heart seemed to pour itself out into my bosom. I did not know whether I would ever speak to her or not or, if I spoke to her, how I could tell her of my confused adoration. But my body was like a harp and her words were like fingers running upon the wires.  
One evening I went into the back drawing-room. It was a dark rainy evening and there was no sound in the house. Through one of the broken panes I heard the rain impinge upon the earth, the fine incessant needles of water playing in the sodden beds. Some distant lighted window gleamed below me. I was thankful that I could see so little. All my senses seemed to desire to veil themselves and, feeling that I was about to slip from them, I pressed the palms of my hands together until they trembled, murmuring: *O love! O love!* many times.

< A >  
Every morning I lay on the floor in the front parlor watching her door. The blind was pulled down within an inch of the sash so that I could not be seen. When she came out on the doorstep my heart leaped. I ran to the hall, seized my books and followed her. I kept the brown figure always in my eye and, when we came near the point at which our ways diverged, I quickened my pace and passed her. This happened morning after morning. I had never spoken to her, except for a few casual words, and yet her name was like a summons to all my foolish blood.  
On Saturday evenings when my aunt went marketing I had to go to carry some of the parcels. We walked through the flaring streets, jostled by drunken men and bargaining women, the shrill litanies of shopboys, and the nasal chanting of street singers. These noises converged in a single sensation of life for me. I imagined that I bore my chalice safely through the throng of foes. Her name sprang to my lips at moments in strange prayers and praises which I myself did not understand. My eyes were often full of tears and at times a flood from my heart seemed to pour itself out into my bosom. I did not know whether I would ever speak to her or not or, if I spoke to her, how I could tell her of my confused adoration. But my body was like a harp and her words were like fingers running upon the wires.

적중

< B >

narration	interior monologue	a soliloquy or a confession of T's love for "her"
protagonist	the narrator	a shy schoolboy
figurative expression	.....(1).....	"T's love for "her"

- Which of the following best shows symbol of "Her image" from the passage?

- ① romance
- ② pig's cheeks
- ③ my chalice
- ④ my confused adoration
- ⑤ a harp

-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for (1) in <B>?

- ① the front parlor
- ② the flaring streets
- ③ the shrill litanies of shopboys
- ④ my chalice
- ⑤ the broken panes

2012학년도 1차 38번 영미소설  
Charlotte Perkins Gilman의 "The Yellow Wallpaper"  
2010학년도 3-4월 영미소설특강 5주차 강의

적중

2013학년도 2차 2번 영미시  
David Herbert Lawrence의 "Snake"  
[영미문학 1-2월 기본강의] 교재 영미문학개론(김유석저, 경문사, pp.238-246)

적중

36. Read the <A> and <B> and answer the question. [1.5 points]

< A >  
Natasha : Excuse me, but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Sharon : Really? Whom should we talk to?  
Natasha : Talk to?  
Sharon : To report it.  
Natasha : I have no idea.  
Sharon : Oh, I'm sorry, I thought you lived here too.  
Natasha : \_\_\_\_\_

9. Read the dialogue <A> and its culture note <B> and follow the directions. [1.5 points]

< A >  
Natasha : Excuse me, but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Shelly : Really? Whom should we talk to?  
Natasha : Talk to?  
Shelly : To report it.  
Natasha : \_\_\_\_\_ (a) \_\_\_\_\_  
Shelly : Oh, I'm sorry, \_\_\_\_\_ (b) \_\_\_\_\_  
Natasha : But I do.

< B >  
Culture Note  
Sharon, who is American, can't imagine that someone who lives in a high-rise apartment doesn't know to whom a broken elevator should be reported. But you would only know that, of course, if you were in the habit of reporting such things, which her Russian neighbor Natasha clearly is not. In her world, elevators break down from time to time, and in due course they are fixed. Meanwhile, one walks.  
By and large, Americans are doers. Their first impulse, when confronted with a problem or an obstacle of some sort, is to act—either to charge themselves or to light a fire under someone else. They respond in this way because they believe that doing something can make a difference. They are an activist culture. Natasha lives in a different universe; she believes that the individual is limited in what he or she can do, that many obstacles are truly insurmountable, and there is, therefore, no point in doing something when elevators break down. When such a person confronts a broken elevator, her first impulse may very well be to just wait and see what happens next. The goal is to endure.

< B >  
Culture Note  
Shelly can't imagine that someone who lives in a high-rise apartment doesn't know to whom a broken elevator should be reported. But you would only know that, of course, if you were in the habit of reporting such things, which Natasha clearly is not. By and large, Americans are doers. Their first impulse, when confronted with a problem is to act. Americans respond in this way since they believe that doing something can make a difference. They are an activist culture. Russians, on the other hand, live in a different universe. Natasha lives in a different universe. Natasha believes that the individual is limited in what he or she can do, that many obstacles are truly insurmountable, and there is, therefore, no point in doing something when elevators break down. When such a person confronts a broken elevator, her first impulse may very well be to nothing, to just wait and see what happens next. This resignation or fatalism, which should not be confused with passivity, probably derives in part from the physical hardships of life in Russia. The goal is to endure. Her immediate instinct is not to act but to cope.

- Considering the culture note in <B>,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st fit in the blank in <A>?

- ① But I do.  
② Let's call the management.  
③ Sorry, it's my fault.  
④ We have to report this.  
⑤ That's OK. I'll report it tomorrow.

- Considering the culture note,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st fit in the blank in <A>?

- | (a)                                   | (b)  |
|---------------------------------------|--|
| ① I don't live here.                  | I thought you lived here too.                      |
| ② Report what?                        | I thought you knew whom we should talk to.         |
| ③ You're talking to the wrong person. | I thought you knew whom we should report it to at? |
| ④ I have no idea.                     | I thought you lived here too.                      |
| ⑤ Come again?                         | I thought you understood me.                       |

2009학년도 중등임용 2차시험

2차 대비 전공논술 3주차 교과내용학 18번

4. Read the statement below and follow the directions. [20 points]

Some people believe that **homework**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learning which facilitates further understanding; others think that homework is largely ineffective as a learning aid and may actually diminish a student's interest in learning.

Which view do you agree with? Take a position and defend it. Be sure to follow the guidelines below.

< guidelines >  
• Write one paragraph, composed of approximately 200 words (20 lines).  
• Include a thesis statement and a concluding sentence.  
• Use two specific reasons to support your position.  
• Explain your reasons as persuasively and convincingly as possible.

18. Read the statement below and follow the directions. [20 points]

It seems a lot of teachers in school assign **homework** to students on a daily basis.

Do you think that daily homework is necessary for students? Be sure to follow the guidelines below.

< guidelines >  
• Write one paragraph, composed of approximately 200 words (20 lines).  
• Include a thesis statement and a concluding sentence.  
• Use two specific reasons to support your position.  
• Explain your reasons as persuasively and convincingly as possible.



## Ⅷ 적중 감사문자



지면 관계상 수백 통의 문자를 다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 [2021학년도]

1. 안녕하세요. 김유석 교수님~~ 교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공B 풀 때 막판 10분 남겨놓고 길어서 뒤로 미뤄놔던 소설문제를 푸는데 작년 3-4월에 수업시간에 다뤘던 작품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작품이란 것을 아는 순간, 아이러니 부분을 너무 쉽게 찾았고 5분 남았다는 방송을 들을 때 나머지부분에 대한 답안을 잘 정리해서 써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고 신기해요. 아, 그리고 시문제도 작년 모고 때 다뤄주셨던 작품이라 낯익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잘 써냈습니다!
2. 김유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임용고시에서 작년에 선생님 강의로 공부했던 "After Twenty Years"와 "promise me no promises"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풀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 덕에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또한 선생님 명강의를 들은 제가 기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진짜 교수님은 선견지명의 신이세여" 교수님 Jimmy 와 Bob이 situational irony랑 엮어 나오다니 진짜 교수님은 선견지명의 신이세여♥ 감사합니다.♥♥ "
4. "재작년문제 풀었는데 문제빈칸이랑 밑줄까지 똑같았어요" 교수님~ 7~8월 수업 들었던 학생입니다. 올해 초에 교수님 재작년문제 풀었는데 문제빈칸이랑 밑줄까지 똑같았어요. affective filter가 낮아지면서 안심이ㅎㅎ dramatic irony도 모고에서 다뤄 주셨고! 1년 동안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아 promise나오는 시문제도! ㅎㅎ"

### [2022학년도]

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운 좋게 1차에 붙었는데 교수님께 감사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중간중간 따끔히 해주신 말씀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붙은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저 이번에 1차 붙었어요!! 7점 높게 붙었습니다. 이미 많은 합격소식 들으셨겠지만 새해 또 합격소식 들으면 교수님이 더 행복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1년 풀커리 따라가면서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2차 준비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3.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영문제 완전 7/8월 교수님 모의고사랑 너무 비슷해서(과학지문) 안 쫓고 열심히 답안 쓰고 왔습니다! 2차시험도 교수님이랑 같이 준비하게 되길 바라며 교수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IX. 수강 후기

### Power Reading Skills

#### 1. 김유석 교수님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3가지

- 1) 논리력을 키워주는 강의: 어떻게 하면 논리력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듣게 된 강의이고, 그 해답을 이 강의에서 찾았습니다. 단순히 읽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데 급급했던 과거의 저를 반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독해는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문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논리력을 키우도록 공부시켜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2)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 저는 부끄럽지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분석하며 왜 이것이 답인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 3) 공부하도록 만드는 강의: 교수님께서 단어시험을 매주 보고 채점 후 이것을 기록해서 직장생들을 케어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암기를 귀찮아서 등한시하던 저도 강의 덕분에 단어를 더 암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끊임없는 명언과 꿀팁들을 말씀해주셔서 매주 강의를 듣다보면 메모장이 꼭 찹니다. 받아 적으면서 많이 공감도 하고, 미처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게 수강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왜 더 일찍 수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보단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매주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 2. 제 패인을 알고, 돌고 돌아서 접한 강의가 김유석쌤의 파워리딩스킬스입니다.

제게 임용 불합격의 가장 큰 패인은 일영이었습니다. 일영이란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저는, 첫 도전 때 일영 공부를 하반기 끝자락으로 미뤘습니다. 안일하게 기업형은 코멘터리나 지문 읽고서 쏙힌 단어, 키워드 같은 단어 있으면 막 적고, 서술형은 만약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적는다 하면 밑줄 앞뒤로 내용 아무거나 갖다가 적으면 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일영에서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이 패인을 알고 돌고 돌아서 접한 강의가 김유석 쌤의 파워리딩스킬스입니다. 일반영어 강의를 들어야 하나? 내 스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이 잘못되거나 본문에서 핀트가 어긋날 때가 많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김유석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GT, CS!!!" "지문에서의 행간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게 아니다." "행간 흐름(flow)와 논리(logic)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어로 생각한 답을 영어로 영작해봐라"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전부 맞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기존에 제가 일영 공부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파워리딩스킬스 강의는 제 이전 공부 방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강의는 제가 장차 영어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영 실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영미시의 이해

#### 1. 영미시의 이해 강의 특징 3가지

- 1) 시를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읽게 해주는 수업: 첫 시간에 시작하자 하신 말씀이 "시는 문법이다"였어요. 수업 듣기 전에는 시를 딱 처음 보면 "도대체 뭐 말이야?"부터 나왔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영미시의 어순이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 강세와 라임 때문이란 걸 이해하게 되면서 주어가 어디 있고 목적어가 어디 있고 문장구조를 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조금씩 시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까지는 할 수 있게 돼요!

- 2) 시를 해석하는 수업이 아니라 독해하는 수업: 선생님께서 "시를 해석하려 하지마라"하고 자주 말씀하세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 시를 보면 자꾸 무슨 말하는 건지 해석하려고하기 때문에 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설 먼저 찾게 되고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처음 보는 시도 거부감이 사라져요!
- 3)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닌 임용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수업: 디렉션이나 코멘터리에서 주어지는 걸로만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썸은 "지식 자랑하는 수업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시인이나 시의 배경지식은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고 적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가 뭐에 대한 건지 다 설명해주시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행부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일단 한번 계속 보자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읽어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읽어 나갈지 수험생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시고, 또 "시험에 나오면 이것 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딱 출제자의 입장에서 뭐가 나올지 설명해주세요! metaphor, paradox, irony 등등 출제될 만한 요소와 theme에 관한 문제를 만들어주셔서 숙제로 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모범답안을 주셔서, 임용시험 스타일로 공부할 수 있어요!

## 2. 김유석 선생님의 명강 '영미시의 이해'

: 저는 이번에 초수로 준비하면서 합격 설명회 강의만 몇개 듣고 노량진에서 유명한 타 학원에 강의를 1-4월 종합반으로 등록했습니다. 결제하고 며칠 후 함께 스터디를 하자고 모인 분들이 전부 '김유석'선생님 강의를 들어야한다고 저에게 추천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이 누구시지?' 하고 O.T 강의를 보았습니다. 임용고시 문제에 관한 직관력과 공부방법 등 분석적이고 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스터디원들의 권유로 1-2월 영미시의 이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 1) connotation 느끼기, 시는 문법이다!

저는 김유석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운 영문학 공부 방법을 버려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학의 배경과 역사를 배우면서 작가의 일생을 다루고 시에 쓰인 기법들과 그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외우는 식의 공부방법이 임용고시와 맞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인강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생처럼 강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영미시를 공부할 뻔 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적극 추천해준 스터디원에게도 고맙고, 무엇보다도 제가 효율적으로 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선사해주신 김유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2)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 시

시를 해석해주시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단어 하나하나 connotation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하는지 계속 반복해주신 덕분에, 5주차쯤 됐을 때 '아~ 이 시인은 지금 현대 사회를 시니컬하게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올랐을 때의 성취감이 공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임용고시에 나올만한 부분을 다양하게 짚어주시고, 계속해서 강조해주신 덕분에 시험문제를 직관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조금씩 기를 수 있었습니다.

### 3) 매주 나오는 과제들

시를 읽고 혼자 복습하고 미리 예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스터디원들과 교수님이 주신 과제를 각자 답안을 작성한 뒤 스터디원 수에 맞게 인쇄를 해서 각자 다른 분들의 답안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답안을 쓴 이유를 얘기하고 상대방의 답안의 잘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장구조가 어려웠던 시를 다시 ordinary language로 바꿔보는 연습도 계속 한 결과, 다음에 더 복잡한 구조의 시가 나오더라도 차근차근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 4) 강의 중간 중간 주옥같은 명언들

저는 따로 김유석 선생님이 주시는 팁과 명언들을 적어 두는 핑크색 수첩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냥 흘러들으면 까먹고 넘어갈 것 같아서, 인강 듣다가 선생님이 해 주시는 조언들은 기록해두고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초수생들은 방향도 잡히지 않고, 공부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데 문학은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출발선의 방향을 잘 잡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Sound and Sense 영미시 분석

### 1. 명쾌하게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우선 강의를 듣기 전에 시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문장 구조가 난해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2) 해석이 된다 해도 의미가 무엇인지 implied meaning을 판단할 수 없었던 시가 많다. 3)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일반적인 단어 뜻이 특이한 단어 뜻!) 근데 유석샘 강의를 듣고 혼자 시를 해석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강의 듣기 전에 혼자 단어도 찾아보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시를 해석해주시면서 문장 구조도 같이 알려주셔서, 관련 지식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시의 단어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게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 2. 이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시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배경지식, 작가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어의 구조와 문법으로 시를 읽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단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에 쓰이는 단어들은 문학작품에만 쓰이는 단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은 강의를 수강하면서 깨졌으며, 많은 단어에 노출되어 제 단어실력을 점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학 강의라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뜯구름 잡듯 강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설명해주십니다. 또한 아웃풋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샘플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수험자 스스로 문학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깰 수 있는 좋은 강의라 생각합니다.

### 3. 영미시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영어교육과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임용고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터넷강의를 찾아보던 단계에서 김유석 선생님을 알게 되어 이렇게 인터넷강의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sound and sense를 듣고 일반영어를 다른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영어강의도 김유석 교수님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교수업 때도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들도 쉽게 설명해주시고 더욱 심화적인 개념도 잘 설명해주셔서 앞으로 임용고사에 대해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 Power Prose Writing

### 1. 두 달간 미친 듯이 Power Prose Writing 책과 교수님의 사고방식만 공부했습니다.

김유석 교수님의 Power Prose Writing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 일반 영어가 안되면 다른 것들은 미뤄라. 진짜 '영어'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2달간 미친 듯이 교수님의 사고방식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오르지 않고 정체 되어 있었던 제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nput의 공부가 아닌 Output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강의를 통해 비록 교수님과는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다 받아 적으면서 교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생각과 교수님 생각을 비교하면서 논리적인 교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과 함께 선생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정통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 2. PPW(Power Prose Writing)와 PRS(Power Reading Skills)

PPW를 들으면서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임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는데 스터디를 통해서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을 써보고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하면서 임용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PRS와는 또 다르게 중요했던 점이 PRS처럼 academic한 글이 아닌 산문으로 flow를 읽는 연습을 하면서 이



말이 결국 이 말이구나를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또 영작을 하면서 중학생 수준의 표현들을 간략하게 써 보고 외우는 과정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시고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는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영미소설의 이해

### 1. 세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강의

영미소설의 이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소설 문장마다 담긴 작가의 의도와 그 의미를 함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법 설명이나,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도 있지만, 소설 자체가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문맥상 유추하고 이디엄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나눠 주는 자료를 미리 풀어보고 이후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답안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8주를 보내고 나면 어느 정도 소설을 푸는 방법도 익히고, 문학작품을 보는 시각도 기르게 됩니다! 일주일에 2~3개에 소설을 읽으면서 미리 읽을 때에 소설에 대한 이해도와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소설의 이해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공부한다면 문학 공부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미소설에 대한 흥미와 이해, 그리고 문제적용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 2. 올해 잘한 일 중 한 가지

친구의 추천으로 3월에 신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지 정말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영어에서 문학은 애매하고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작년까지는 아예 강의도 안 듣고 문학 기출문제만 조금 훑어본 게 다였습니다. 일영, 문학을 소홀히 한 것이 작년의 패인인 것 같아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막상 하려니 오히려 문학이 범위가 너무 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풀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자세하고 어떤 면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의무감으로 느껴졌던 문학작품 읽는 일이 오히려 즐겁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주시는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게 올해 잘한 일 베스트5에 듭니다.

### 3. 문학에 눈뜨게 해준 강의

모의고사에 나와도 읽히지 않는 문학은 다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접하면서, 처음 어떻게 글을 대하고 읽어야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로부터 이 작품에 들어있는 사고관 또는 문학적 개념까지 학습자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다뤄주셨습니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아 문학을 이렇게 읽어야하는구나 하고 처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은 배경지식과 그 작가의 환경 등을 알고 읽기보다는 하나하나 내가 단어와 구문을 이해하고 음미하면서 독해를 해나가며 읽어나가야 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반영어/영미문학 기출분석 모의고사

### 1. 교수님 강의는 정말 수업이 빠져들도록 재밌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기출특강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교수님의 수업은 최고라는 것을 수업을 듣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강의의 좋은 점은 하나하나 Bottom up으로 해석해주시고, 문장 하나하나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는 선생님의 강의에 저도 모르게 폭 빠져들곤 합니다. 그

리고 중간 중간 전해주시는 깨알 같은 유머도 정말 박카스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강의를 듣기 전엔 기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혼자 공부하면서 대체 이런 선택지는 왜 정답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의를 듣고 아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학, 일반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 2.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복불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다른 팀 강의에서 예전에 문학을 강의 들은 적이 있는데, 강의를 듣고 책을 봐도 도저히 작품이 나오면 접근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푸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작품에 대한 배경설명이 대부분 강의 내용이었는데, 그것만으로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의 시대나 제목을 모를 경우 전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은 뭐 운 좋으면 맞추고 아니면 틀리는 건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김유석 선생님의 기출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작품을 꼼꼼히 해석해가며, "모든 답은 지문에 있다."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사실을 진즉에 알았다면, 수많은 문학 작품과 강의를 무조건 듣기보단, 작품을 꼼꼼히 보는 법을 알려주는 진짜 강의를 듣고 실력을 쌓았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도 들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해야죠. 문학을 이제껏 이렇게 접근한 적이 없었던거요 감동이라 해야 할까, 공부 3년 만에 알게 된 신세계랄까. 꼼꼼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 기입형 집중대비 월든(Walden) 특강

### 독해실력과 문법실력에 실망했는데 선생님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김유석쌤 상반기 강의를 다 들어서 올해는 김유석 선생님 강의와 교재를 혼자 복습하고 스티디도 병행하면서 5-6월에 월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월든 지문자체가 저에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도 나가는 해당부분 예습한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늘었고. 솔직히 저는 교수님 강의들 중에 월든 문제풀이 특강이 가히 최고의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용학원가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은 김유석 쌤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깊이 있는 구문분석과 문학적 산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독해, 그리고 퀄리티 높은 문제까지 정말 좋은 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유석 선생님께서 강의준비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겠죠. 언제나 수강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김유석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영미산문 특강

처음 들어보는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을 믿고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역시는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뜻 깊었습니다. 양질의 지문들로 구성된 많은 문제들은 물론이고, 교수님이 엄선해주신 좋은 단어들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 포인트에서 산문 특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력 향상입니다. 교수님이 엄선한 지문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임용에서 요구하는 자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 산문 단어를 통해서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단어의 중요성을 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교수님의 기존의 강의를 많은 수강자들이 듣고 있고 그 강의들도 좋다는 평이 많은데도 수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더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간을 쪼개서 새로운 강의를 도전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고등학교 교과서 53종 응용문제 특강

처음에 이 강좌를 신청할 때 반신반의 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내가 아는 것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별개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생각 들었고, 어차피 내가 가르칠 학생들 교과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기초에 충실하면서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답안연습을 스터디원과 같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용공부를 하다보면 자꾸 주위에 신경 쓰게 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어려운 원서를 공부해야 합격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김유석 쌤 말대로 기초에 충실하면서 영어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 문법서도 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김유석 교수님께 감사드려요.

## 문제풀이 / 모의고사

### 1.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강의

처음 강의를 선택할 땐 저도 모르게 재미있는 강의를 선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를 올려주는 강의,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김유석 교수님의 강의가 제대로 된 강의인 것 같아요. 또한 채점 컨퍼런스시간에 나눠주는 직강생 최고점 답안을 보고 직접 베껴 써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첫 해에는 모의고사조차 시간에 맞춰 풀지 못했고, 서술형은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답안에서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선생님을 믿고 했던 공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김유석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신다면,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저와 맞을지 안 맞을지 오랜 시간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참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 같습니다. 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신 느낌이 많이 듭니다.

### 2. 유석쌤 모의고사 특징 3가지


- 1) 엄청난 시간의 압박 속에서 기출 난이도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 및 output 능력 신장: 기입형의 경우 논리/구조로 푸는 유형과 어휘/숙어에 대한 지식으로 푸는 유형 등 기출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말 신기한 건 글 읽는 속도와 output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 2) 지속적인 어휘 노출 및 반복: 9-11월 동안 파워보카를 다시 한 번 반복했는데, 정말 파워보카는 바이블입니다! '어 이거 어디서 봤다' 싶은 단어 및 구문은 정말 파워보카에 다 있더라고요! 또한, 모고 지문에 등장한 단어도 계속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중요 어휘 및 구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확장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3) 시험 관련 핵꿀팁 줘줌: 남은 기간 대비 전략, 시험 당일 전략,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 멘탈 관리법 등등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던 핵꿀팁을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던져주시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처음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 선배들에 물어보는 방법 외엔 없어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정말 다양한 팁과 전략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2,3,4위까지 🍷 힙쓸고 있는 김유석교수님의 교재!!!

동영상 강의 임고야



## X. 김유석 교수 커리큘럼

	정규강의	추천동영상강의 특강
1-2월	Power Reading Skills 영미시의 이해	교과서 응용문제(Output) 특강
3-4월	Sound & Sense 영미시 분석 영미소설의 이해	Power Prose Writing
5-6월	일영/문학 10개년 기출모의고사	영미산문 특강
7-8월	유형별 문제풀이	월든 특강
9-11월	김유석 모의고사	기입형 특강①②③
12월	2차대비반	
특강(인강) <b>임고야(imgoya.com)</b> 에서만 신청가능		
교과서 응용문제 특강 / Power Prose Writing / 영미산문 특강 / 월든 특강 / 기입형특강①②③ 2023년대비 7-8월 모의고사 / 2022년대비 9-11월 모의고사		

강좌명	개요
Power Reading Skills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일반영어 필수코스
영미시의 이해	영미시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강의 /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Power Prose Writing	서술형 유형에서 제일 도움 받았다는 강의! / Paraphrase(Output) 집중연습 /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영미소설의 이해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의 차이를 알려주는 강의! / 소설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의 /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Sound & Sense 영미시 분석	<영미시의 이해> 강의와 중복되지 않는 Further Studying Poetry! / 2008년부터 시작된 <Sound & Sense> 강의의 원조! /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일영/문학 10개년 기출모의고사	최근 출제방식과 디렉션 분석 / Top Secret!
월든 특강	기입형 중심의 문제풀이
영미산문 특강	글의 구조와 Flow Reading의 결정판!
기입형 모의고사 특강	수험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기입형 문항을 정복하기 위한 답안 유추하는 방법을 강의!
교과서 응용문제(Output) 특강	김유석 교수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한 지문과 응용문제를 통해 'Output'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강의
유형별 문제풀이	고득점을 위한 임용문제
김유석 모의고사	김유석 교수의 날카로운 채점 Clinic
2차 대비반	1차 합격자의 90% 최종합격률

## XI. 김유석 교수님 상담 신청서

\*\* 정확하고 자세히 입력 부탁드립니다.

이름 / 연락처			아이디 (임고야 or 월비스)	
김유석 교수 강의 수강여부 (O로 표시)	Power Reading Skills		영미시의 이해	
	Power Prose Writing		영미소설의 이해	
	일영/문학 기출분석		Sound & Sense 영미시 분석	
	고등학교교과서 53종 응용문제 특강		월든 특강	
	산문특강		기입형 특강①②③	
	7~8월 문제풀이		9~11월 모의고사	
응시 지역	응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모두 적을 것		올해 응시 예상지역	
임용경험	초수	초수 같은 재수	재수	3수 이상
	시험경험이 있는 경우 전공점수 모두기입			
학교 (구체적으로)				
상 담 하 고 싶 은 내 용				



김유석 전공영어 **NAVER**blog



김유석 전공영어 **Ddum** 카페

“

방법이 결과를 바꾼다!

”



**윌비스 임용고시학원**


 **Tel.** 1544-3169

 **임용 홈페이지.** [ssam.willbes.net](http://ssam.willbes.net)



전공영어 동영상전문

**imgoya.com**  
Since 2003

 **임고야 전공영어 동영상 홈페이지**

[www.imgoya.com](http://www.imgoya.com)